

제목 : 레위기 7. 속건제 - 회복의 은총

본문 : 레위기 5장 14-19, / 참고 - 레위기 7:1~10 /

(레 5:15) 누구든지 여호와와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양을 양 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속건제(贖愆祭)가 보여주고 있는 죄의 진면목 - 잘못을 보상하되...

1. 5대 제사중에서 마지막으로 레위기가 다루고 있는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속건제 역시 **죄 문제의 해결을 다룬다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이 두 제사들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알아야겠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속건제를 별도로 정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다는 것이지요. 죄의 문제를 이토록 철저하고 분명하게 다루시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속죄제(**חַטָּאת**, **하타아**)와 같이 속건제(**עוֹלָת**, **아삼**) 역시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들이 먼저 제시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여호와와 성물에 대하여 범죄한 경우, 계명 중 하나를 범하여 벌을 받는 경우 그리고 6장에서는 이웃을 향하여 신실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손해와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를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속건제의 경우 부지 중에 일어난 죄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소 의도적으로 보이는 범죄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나 성물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끼친 피해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죄책의 제사(guilt offering)** 혹은 **배상의 제사(reparation offering)**라고 합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를 어떻게 치료하고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하게 합니다.

1) 속건제가 다루고 있는 죄의 특징을 생각해 보십시오. 속죄제에서 다루는 것은 심정적이고 명목적인 죄와 죄책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발생한 죄가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대상물의 고유한 가치가 손상을 입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해당 가치 만큼 또는 그 이상의 가치를 보상하여 손실된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속건제의 관심 영역입니다.

2) 하지만 단순히 재산상의 피해와 손해만을 다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해당되는 당사자들끼리 직접 해결하는 것이 제일 간단하고 손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면 속건제와 같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속건제의 규례를 말씀하시고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 3) 속건제가 다루고 있는 죄(גַּעַל, 마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의 과정이 있어야 했습니다. 우선 재산상에서 손해가 되고 피해를 입은 그 본래의 것에 해당하는 원금과 함께 거기에 1/5을 더해서 갚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흠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수 있는 회복과 치유의 길은 무엇인가요?

속건제의 규례와 회복의 은총 -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2. 속건제가 다루고 있는 죄의 성격을 살펴보면 단순히 이것이 재산상의 피해만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상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게 되면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값싼 회개와 정작 피해를 입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기분만을 따지는 저급한 구원의 횡포만 남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속건제의 규례는 또하나의 복잡한 의식이 아니라 회복의 은총을 나누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요구라 할 것입니다.

- #. 속건제의 다양한 사례들을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레 14장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속건제의 절차가 요구되었습니까? 또한 민수기 6:7~21에서는 어떤 경우 속건제의 어린 숫양을 바쳐야 한다고 했습니까? 이외에도 민 19:20~22 그리고 에스라 10:19에서 각각 어떤 경우에 속건제의 숫양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속건제의 숫양이 사용된 이런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 1) 6장에서 다루는 속건제는 주로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소 의도적으로 벌어진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그 각각의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이 각각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전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또 회복과 관련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것일까요?

- 2) 제사장들이 참조해야 하는 속건제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7장 1~7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속건제가 진행되는 절차를 살펴보십시오. 이런 절차 중에 다른 동물 제사들과는 다르게 진행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3) 속건제의 규례들을 정리하면서 오늘날 주의깊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범죄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허물과 피해를 어떻게 해결하고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속건제의 규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 적용을 위한 기도 제목 : 속건제의 규례를 통하여 다시한번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어떻게 회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옴을 기억하게 하소서.

속건제와 관련된 중요 단어 사전

עוֹנֵן (817, 아삼) 위반, 죄, 범죄, 침해, 유죄, 배상, 속건제

아삼(명남)은 아삼עוֹנֵן, 816)에서 유래했으며, '위반, 범죄, 죄, 유죄(죄가 있음) offence, guilt'를 의미한다.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45회 나온다.

- (a) '위반, 범죄, 침해, 비행', (시 68:22, 창 26:10, 잠 14:9, 렘 51:5).
- (b) '보상, 배상 compensation' (민 5:7, 민 5:8).
- (c) '속건죄' (레 5:6, 레 5:7, 레 6:10, 레 7:1, 레 7:2, 레 7:7, 레 7:37, 레 14:12, 레 14:13, 레 14:14, 레 14:17, 레 14:21, 레 14:24, 레 14:25, 레 14:28, 레 19:21, 레 19:22, 민 6:12, 민 18:12, 겔 40:39, 겔 42:13, 겔 44:29, 겔 46:20). (참조: BDB; TWOT).

חָטָא (2398, 하타) - 빗나가다, 잘못 행하다, 죄를 짓다

하타(동사)는 기본어근이며, '놓치다, 빗나가다, 그릇(잘못) 행하다, 죄를 짓다, 상실하다, 속죄제를 드리다, 정결케 하다, 정죄하다'를 의미한다.

이 어근은 구약성경에서 580회 사용되며 따라서 죄에 대한 기본적인 단어이다. 이 어근의 기본적인 의미는 표적을 빗맞추거나 혹은 길을 잃다를 뜻하고 있다. 이 단어는 우가릿어에서 두번 혹은 세번 '죄' sin를 의미하며 사용되고 있다(UT 19: no. 952, Ais Wus 1019).

동사적 어형들은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하여 기본적인 설명을 제공해주는 세속적인 문맥에서 나온다. 삿 20:16에서 베냐민 족속의 원손잡이의 물매를 던지는 자들은 돌을 표적에 던져 빗맞추지 않는 기술을 가졌다고 한다. 상이한 문맥으로 잠 19:2는 자신의 "길을 잃어버린" 서두르는 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RSV, NEB, KJV는 '범죄하였다'로 기록함). 이와 같이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개념은 잠 8:36에 나오는데 그 실패의 개념이 암시되어 있다.

이 동사는 창 40:1에서 시민의 법률을 파기한, 즉 시민법의 기대대로 살지 못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왕하 18:14의 국제 범죄의 의미와 출 5:7의 과오라는 단어의 비난적 의미를 비교하라. 애굽인들은 벽들을 만드는데 짚을 제공하지 않았다. 개인적 관계에서 심각한 단절은 부정적으로 삼상 19:4, 삼상 24:12에서 이 동사에 의하여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삼상 26:21에서 사울의 고백에 의하여 강조되고 있다. 삿 11:27과 비교하라.

KJV는 욥 5:24에서 이 동사의 뉘앙스를 묘사하지 않고 있으나 RSV는 '아무 것도 있지 않았다'는 것으로 묘사하며, NEB는 '아무 것도 잘못하지 않은'으로(nothing amiss), NIV는 '잃은 것이 아무 것도 없다'로 묘사하고 있다. 동사 하타는 여기에서 전체적인 것보다 작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다. 개인 관계의 어떤 결과가 창 43:9, 창 44:32에서 발견되고 있다. 유다는 그가 그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나(KJV, REV) 혹은 '죄를 범하게' 된다는(NEB) 것을 말하고 있다. 레 4:2에서 형태, 하타 민은 종교적 의무의 확장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으며, 레 5:16에서는 옹당히 해야 할 행위에 못미치는 행위 즉 온전한 임무를 행하지 못함을 가리키고 있다.

'하타'에 '레'가 따라올 때, 다른 사람의 온전한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 다음에서 내포되고 있다. 예, 창 20:9, 삿 11:27, 대하 6:22, 혹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하여, 예, 출 10:16, 삼상 2:25, 가끔 하나님이 목적어가 된다.

그러나 '하타'에 '베'가 따라오면 강한 반대를 나타낸다. 이에 대하여 창 42:22, 삼상 19:4 이하, 욥 2:10, 느 9:29를 보라. 요약하면 '하타'에 '레'가 부가되면 완전히 인격적인 것이 되며 반면에 '하타'에 '베'가 부가되면 보다 일반적인 것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동사가 칼 어간으로 나오는 많은 실례에서 목적어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율법이 되거나 그 밖에 이 동사는 자동사가 된다. 따라서 행위에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향하신 목적 혹은 표준을 놓쳐버린다. 즉 거룩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요구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혹은 영적 완전함에 미치지 못한다. 이 단어의 분사형은 잠 13:22, 사 65:20과 전도서의 모든 실례에서 죄인을 지칭하는 것 같다. 그러나 사 1:4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상태에 못미치는 존재의 질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죄' sin의 개념에 관계된 다른 단어처럼 이 단어는 절대적 표준 혹은 법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페사(פֶּסַח, 6588)는 '표준에 대한 반역' revolt을 뜻하며, 아와(אָוָּה, 5753)는 '표준에서 벗어나다' 혹은 '표준을 왜곡하다'를 의미하며, 하타(חָטָא, 2398)는 '표준을 빗맞추다', '표준에 미치지 못하다'를 의미하고 있다. 헬라이어 단어 아노미아(죄 sin)는 '법' law을 뜻하는 단어에 부정 접두사가 결합되어 구성된 것으로서 따라서 '법이 없는' without law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여기에 '심판'이 함축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상 법은 심지어 죄인이 스스로 '법이 없다' without law고 생각할찌라도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다.

피엘 어간에서 이 동사는 창 31:39에서와 같이 결여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 야곱은 계산할 수 없는 동물을 위하여 '잃어버린 것을 보충'하여야만 했다. 대부분의 피엘형은 종교적 의미로서, 죄를 없애는 청결의 의식 혹은 정화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예, 출 29:36, 레 14:29, 레 14:52, 민 19:19, 시 5:17 [H9]와 에스겔의 모든 실례. 또한 헛파엘 어간에서의 이와 같은 의미를 참조하라(민 8:21, 민 19:12-13, 민 19:20, 민 31:19-23, 욥 41:25 [H17]). 레 9:15와 대하 29:24에서 이 동사의 어형은 '속죄제를 드리다'를 의미하고 있다.

히필 어간에서 이 동사는 '다른 어떤 사람들을 범죄하도록 인도하다'를 의미하고 있다. 출 23:33은 가나안인들이 이스라엘인으로하여금 범죄케 하도록 허락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여로보암의 죄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심판받는 기준이 되었다(왕상 14:16, 왕상 15:30 등). 또한 느 13:26을 보라. 이 동사는 신 24:4에서 범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상 숭배는 경고하는 말씀이 일차적으로 지적하는 죄이다.

- G. H. Lington, (p.511*)

מַעַל (4603, 마알) - 불성실하게(부정하게) 행하다, 반역적으로 행하다

마알(동사)은 기본어근이며, '불성실하게 행동하다, 반역적으로 행동하다'를 의미한다.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36회 나오며, 칼형으로만 사용되었다.

대체로 마알이라는 모든 성경 언급들은 의식적인 배신 행위로서 종교의 법률을 파괴하거나 혹은 위반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침해를 당하는 희생자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거의 상투적인 구절은 마알 마알 베이훼, 즉 '여호와께 거스려 범죄하다'이다(레 6:2, 민 5:6, 수 22:31, 대상 10:13, 대하 12:2, 대하 26:16, 대하 28:19, 대하 28:22, 대하 30:7). 일인칭으로 변형은 마알 마알비, 즉 "나를 거스려 범죄하다"(레 26:40, 겔 14:13, 겔 20:27, 겔 39:23, 겔 39:26).

몇 개의 실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어근은 하나님이 대상이 되시지 않는 문맥에서 사용된다. 이들 중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 ① 잠 16:10, 왕의 입은 재판 시에 그릇되지(임알) 아니한다.
- ② 욥 21:34(욥이 세 위안자들에게 한 말), "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나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Pope, in AB, Job, "sheer fraud"; JB, "nonsense").
- ③ 민 5:12, 민 5:27. 그것은 민수기에서 마알의 이면에 있는 어감의 차이에 대하여 가장 좋은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마지막 구절이다. 민 5:12은 다음과 같다: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살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또한 민 5:13은 다음과 같이 연속된다: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따라서 '범죄한다는 것'은 불신실하게 행동하며 하나의 계약을 깨뜨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일반적 개념은 변절과 불신실함이다. "불성실함"(perfidy)라는 말이 이 모든 말에 가장 가까운 의미일 것이다.

가끔 이 어근은 아간의 경우와 같이, 개인이나 사적인 주인의 신실치 못한 행위에 적용되나(수 7:1, 수 22:20, 대상 2:7), 거의 왕족 인물에 대해 사용된다(사울: 대상 10:13, 아하스: 대하 28:19, 대하 29:19, 웃시야: 대하 26:16, 대하 26:18, 므낫세: 대하 33:19, 시드기야: 겔 18:24). 종종 이 단어는 광야 시대로부터(민 31:16, 신 32:51) 포로기 이후의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역 시기에 이르기까지(스 10:2, 스 10:10, 느 1:8)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고발을 가리킨다. 그것이 유다의 포로 신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겔 39:23, 단 9:7). 1회의 실례에서 아국 통치자(사식)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대하 12:2). 여기에서 이 단어는 불신자의 죄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 언약의 백성들, 주님과 맺은 "민음을 깨버린" 자들의 죄를 언급한다. 그러므로 겔 18:24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천명한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아벨...그가 그 범한[마알]) 허물과 그 지은(하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구약성경에서 죄에 대한 많은 단어들 중에서 마알은 종종 "범죄하다, 빗나가다"를 의미하는 하타와 병행하는 구절에서

사용된다. 레 5:15, 레 5:21, 민 5:6, 대하 33:19, 겔 14:13, 겔 18:24. 70인역본에서 마알을 번역하는데 사용된 많은 단어들이 있다. 흥미롭게도 에스겔서에서 지배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범죄하다"의 파라피프토인 반면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이행하지 않다, 비끼게 하다"의 아쉬데토이다. 역대기의 번역에서 상당하는 유형은 없다. (참조: V. P. HAMILTON; BDB).